

“두드리고 배우고 신나요”

나주 심향사, 어린이 난타 템플스테이 개최

‘쿵, 따, 쿵 따, 읊수~’ 전통사찰에서 어린이를 위한 신명나는 난타템플스테이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1월 24~30일 ‘청련비천-푸른마음, 바른행동 배움터’를 주제로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어린이 난타를 비롯해 단청장후보 박정자님의 탕화그리기, <부모은중경> 특강, 부처님상에 바로 알기, 한지공예, 비누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눈썰매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난타그림 ‘읊수’의 지도로 매일 90분씩 6일간 진행된 어린이 난타에서 학생들은 저마다 북, 장고 등 전통악기와 세수대야, 발롱, 팽관판 등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생활 속 기물들을 전통가락에 맞춰 연주했다. 20여 어린이가 참여한 이번 어린이난타는 30일 회향에 앞서 발표

회를 열기도 했다.
원광 스님은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가장 잘 접목시킨 난타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심향사 템플스테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교와 전통문화를 가장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행사의미를 설명했다.
주판교(광주 운암초 6학년) 어린이는 “힘껏 두드리며 배우는 것이 너무 신났다. 다음번에는 친한 친구들과 같이 오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심향사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해 다양한 체험위주



나주 심향사에서 6일간 열린 난타템플스테이에서 학생들이 생활 속 기물들을 전통가락에 맞춰 두드리고 있다.

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와 현대문화의 장점들을 잘 소개한 후

수프로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주지역 불교홍포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061)334-288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지역주민 대상 무료 진료 실시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관장 무궁은)은 1월 19일 고창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진료 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무료 한방진료는 사암침술로 널리 알려진 금오 김홍경 선생과 한의사, 진해영원 등 8인의 사암한방봉사단이 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을 방문해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침, 한약처방 진료를 실시하고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144명의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진료 서비스를 받았다.
관장 무궁은 스님은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꾸준한 건강관리가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앞으로도 무료진료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재소자들의 건강한 삶을 꿈꾸며...

전국 49개 교도소 중 유일하게 불자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던 군산교도소에 교정인 불자들의 모임인 불심회(회장 황원주·총무 이호승)가 창립된 것은 2006년 12월의 일이다.
타 종교를 갖고 있는 교정직원들이 각자의 종교를 따라 재소자들을 교화하는 모습에 불심회를 이끌던 황원주 회장과 이호승 총무는 군산 동국사 종결 스님을 찾아갔다.
황 회장 등은 스님에게 교정인불자모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움을 청했고, 종결 스님은 흔쾌히 수락하며 지도법사를 맡아줬다. 이후 황원주 회장 등은 교정인 불자들이 정기적인 법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군산교도소 불심회 창립의 결실을 맺게 했다.
황원주 회장과 이호승 총무는 창립취지를 전 직원들에게 회람을 돌리고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고, 결국 지금의 22명의 회원이 모였다. 창립 3년이 지난 현재 군산교도소 270여 직원 중 42명이 불심회 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불심회는 군산교도소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가진 단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어느 날이었다. 매주 목요일에 열리던 불자 재소자 법회에 가끔 갑작스런 사정으로 법사를 모시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불심회 회원들은 스스로 수행과 교리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어 몇몇 회원을 전주의 화엄불교대학에 진학시켜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통해 재소자들의 교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불심회는 매년 2~3명 회원들의 학비를 지원중이다. 그 결과 불심회 회원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외부인의 교도소 출입이 어렵게 되자 불심회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불교법회를 이끌어 오기도



황원주 회장(오른쪽)과 이호승 총무.

모두 불자가 되는 포교사의 역할도 했다.
또한 이호승 총무는 외국인 수용자들을 위해 국제포교사 자격도 준비 중에 있다.
불심회 회원들은 불자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이면 교도소를 모두 연등으로 장식해 작은 불국토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활동과 선행활동 외에도 짬짬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진정한 바라밀의 실천”이라는 원을 세우고 동국사 신도회와 함께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 의료봉사활동이나 불교 복지시설 방문, 법률자문 등 봉사활동에도 힘을 예정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재소자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불심회 회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부부나 존자가 아닐까?
다 음 카 페 군 산 불 심 회
http://cafe.daum.net/kunsanbulshimhwa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무행정 특강 열기 ‘활활’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연말정산·행정프로그램 등 교육

요즘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스님의 걱정거리는 연말정산 관련업무와 사찰종무행정의 효율성이 단연 꼽힌다.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원장 금명)은 1월 26일 광주 상무동 조선컨벤션에서 연말정산 등의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종무원 산하 주지스님 및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종무원의 행정 안내, 세부교육, 사찰종무행정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광주전남종무원장 금명 스님, 원로부위원장 지암 스님, 종회위원장 설봉 스님, 사정원장 지산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 소속 스님들과 교인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로의원 지암 스님은 축사에서 “현재 태고종은 많은 젊은 스님들이 배출돼 미래가 밝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승가가 서로 화합하는



연말정산 특강에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종무원이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이에 앞서 금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무원산하 각 사찰의 주지스님의 원력과 지혜를 모아 광주전남종무원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회원스님들의 뜨거운 열의와 힘을 보

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종무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양에 앞서 진행된 연찬회에서는 종무원 회원사찰에 대한 분담금과 분담금 기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이어 스님들은 향후 회원사찰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년회의 든든한 후원자

원각사 불일청년회 동문모임 창립

광주의 대표적인 사찰청년회는 관음사청년회와 원각사 불일청년회이다. 관음사청년회는 현재 사라지고 없어 원각사 불일청년회가 가장 오래된 청년회로 활동하고 있다.
1월 26일 원각사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원각사 불일청년회 동문회(초대회장 임동호)가 공식 출범한 일이다.
행사는 원각사 부주지 도요 스님을 비롯해 원각사 불일청년회 김용옥 초대회장, 선우회 정원채 회장 등이 느릿 중·장년이 된 100여 원각사 불일청년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법회식과 창립총회가 봉행됐다.
창립총회에서는 동문회 초대 회장으로 임동호 동문회 준비위원장이 추대됐다. 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너무 오래만에 본 회원들이 있어 반갑다. 도반들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며, “이제라도 부처님의 법을 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용옥 청년회장은 축사에서 “현 청년회의 작은 힘이 되어주자 동문회를 만들게 되었다”며 “광주불교에서 청년불자의 위상을 만드는 데 동문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화합해 부처님의 자비를 회향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식에 이어 진행된 창립총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과 인준에 이어 회칙 제정,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동문회는 행사자료를 통해 향후 △청년회원 조직관리 △동체대비로 함께 살아가는 나눔운동 전개 △어려운 불자가정 돕기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사업 후원 △원각사청년회 포교·발전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각사불일청년회는 1979년 10월 창립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을 광주의 청년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파하는 첨병역할을 해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개금불



1비취옥불



1백옥불



1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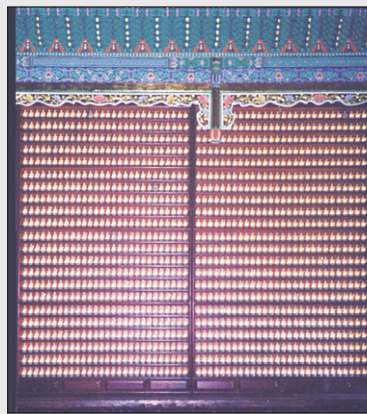
1대나무숯불

■규격: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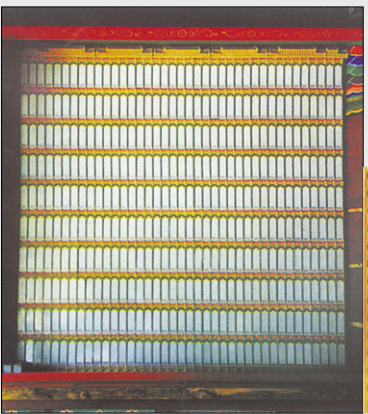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 연등전선 시공.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1LED인등 (해남 대흥사)



1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정우불교 예술원



1공단등

1바리등

1영가등

1금등

正宇불교예술원(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당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욱(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